


**논문 6**

#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김민규\*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인적자본의 측정변수인 교육 변수 이외에 인적자본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STATA 12.0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은 인적자본 스톡, 교육훈련, 회사 인재 양성 노력, 교육-노동시장 연계, 노동 이동의 변인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 변인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성장과의 긍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자기개발을 한 경우, 회사 내 집체교육을 실시한 경우(Training\_Inhouse), 회사 내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가 지역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인적자본, 지역성장, GRDP,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

## 1 서론

과거 국가주도 경제성장 기조 하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면, 현재에는 전국에 산재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기업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지역 내 기업이 인적자본 축적 방식이 어떠한지와 이러한 기업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이 지역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지역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인적자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성장 등 해당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표로 주로 쓰이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있는 것은 교육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이다(Rodriguez-Pose, A & Vilalta-Bufi. M, 2004).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현상은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고등교육 관련 지표로 해당지역의 설명 지표로서의 적합성은 높지 않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성장에 인적자본의 역할과 인적자본이 지역경제 수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김종구, 2007).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해당 지역은 부족한 자원을 전략적 활용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기존 연구의 검토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의 스톡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Schultz, 1961; 심재희, 2003에서 재인용). 한편, 경제성장에서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Shultz(1961), Mincer(1962), Becker(1964) 등의 인적자본론에 의해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심재희,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학계의 널리 알려진 견해를 입증할 만한 연구는 많지 않다(Rodriguez-Pose, A & Vilalta-Bufi. M, 2004). 그리고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인적자본이 개별 국가의 번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Caselli, 2005; Hanushek and Woessmann, 2012; Hanushek et al, 2013에서 재인용).

국내 지역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접근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적자본의 주된 측정 대상이 고등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파악됨으로 인해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인적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다양한 변수의 산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기업패널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 GRDP 자료를 연계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인적자본과 지역 발전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여러 인적자본 측정 대상 중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본 스톡, 교육훈련, 회사 인재 양성 노력, 교육-노동시장 연계 그리고 노동 이동 변수를 여타 인적자본 변수를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가. 분석자료 및 변인설정

이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인적자본기업패널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을 이용한다. HCCP의 조사대상 기업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과 금감원 등록기업 및 기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HCCP는 2년 마다 실시되었고, 2004년 450개의 기업, 2007년 467개, 2009년 473개, 2011년 500개의 기업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0명 이상 응답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역성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5~2011년까지의 균형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시군구 단위의 GRDP를 제공하는 전국 16개 시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의 경우 시군구 수준의 GRDP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2005년 기준년도 가격 GRDP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1인당 실질 GRDP는 지역별 2005년 기준년도 가격 GRDP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상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시도 단위에서 표준화했다.

2005년 시도평균을 고려한 1인당 시군구 GRDP와 2005년부터 2011년간 1인당 시군구 GRDP 성장률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와, 현장에서 유용했는가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이동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해당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비율을 포함했다.

〈표 1〉 인적자본 변인

구분	변인(명)	설명
인적자본 스톡	Skilled_Entry	입사 당시 숙련수준
	Skilled_Current	현재 숙련수준
	HCsecon	중등교육 이수한 응답자 비율
	HCtert	고등교육 이수한 응답자 비율
	HighSkilled	숙련 근로자 비율
	Professional	근로자 중 전문직 및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
교육훈련 참여	Current Insti	회사지원 자기주도 학원 교육 이수자 비율
	Current Tert	회사지원 자기주도 대학 이상의 교육 이수자 비율
회사 인재 양성 노력	HRP#1	인재우대
	HRP#2	커뮤니케이션
	HRP#3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신뢰관계
교육-노동시장 연계	LM_TRHR	회사에서 직무기술을 7일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비율
	LM_relevant	현 직장 습득 직무기술이 업무와 관련성 있는 훈련 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
	LM_applicable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
	Satisfy	업무 만족도
노동이동	Turnover	이직 의도
	Foreign_worker	외국인근로자(연수비자)
	Foreign_professional	외국인근로자(전문가비자)

## 나.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TATA 12.0을 사용하였다.

$$\Delta GRDP_{t,0} = \alpha + \beta_1 GRDP_0 + \beta_2 stock_0 + \beta_3 state_0 + \beta_4 match_0 + \beta_4 migrat_0 + \varepsilon$$

위 회귀분석 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GRDP는 시군구의 1인당 GRDP이며, 해당 시군구 1인당 GRDP값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stock은 이용가능한

인적자본 스톡 값을 의미한다. 또 *state*는 현재 교육 수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match*는 해당 지역내 교육 공급과 노동시장 수요 사이의 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migrat*는 노동 이동에 관한 지표를 의미한다.

GRDP와 HCCP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된 2005년을 '0'으로 두었으며, 가장 최근에 GRDP자료가 2011년이므로 HCCP도 2011년에 생산된 4차년도 자료를 사용했다.  $\epsilon$  는 오차항이며,  $\beta$  는 계수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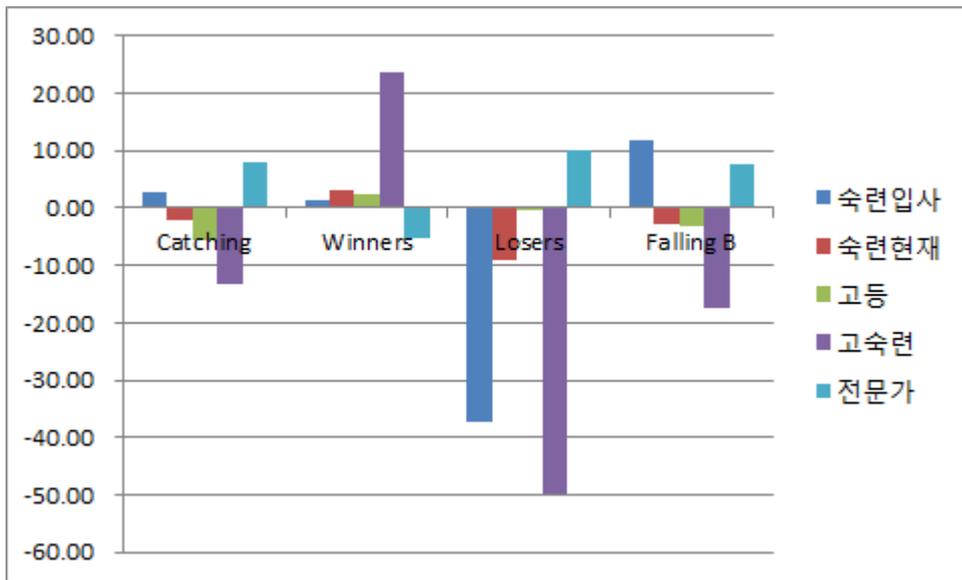
### 가. 기술통계

#### 1) 인적자본 스톡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선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해당 기업 내 숙련자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 고숙련 기능인의 확보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선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숙련 기능인의 양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후 지역의 경우 입사자 중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며, 해당 회사 내 고숙련 기능 인력의 비중도 낮다. *Falling Behind* 지역의 경우에도 입사자 중 숙련 입사자의 비중은 높으나 현재 회사 인력 중 고숙련 기능 인력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회사 내 전문가 비중은 선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그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전문가 직종의 특성상 회사 내 설문 응답자의 분포비율과 응답성향, 회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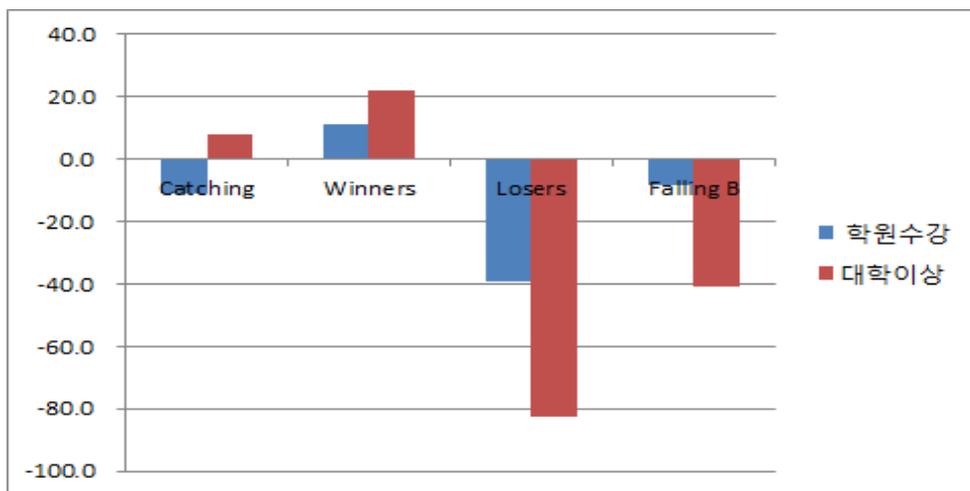


[그림 2] 시군구 지역의 인적자본 스톡 현황

## 2) 교육훈련

[그림 3]에서 보여지듯 시군구 지역의 회사 내 교육훈련의 참여현황은 선도 지역이 회사지원에 의한 자기주도의 학습 즉, 학원수강과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낙후 지역과 Falling Behind 지역은 추격 지역과 선도 지역에 비해 확연히 참여도가 낮음으로 인해 향후에도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지역성장에 상당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시군구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 3) 회사 인재 양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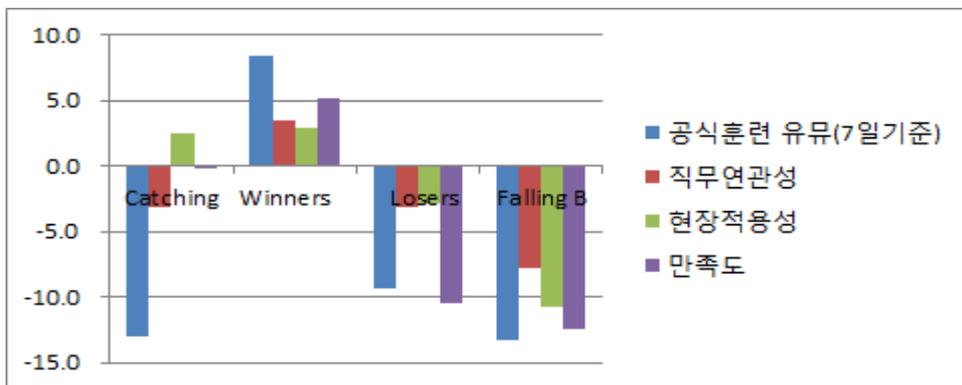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회사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에 대한 정성적 노력이 지역사회 인적자본 축적과 깊은 연관을 가질 것 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선도 지역은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여타 지역에 비해 각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침체 지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시군구 지역의 회사 인재 양성 정책 현황

### 4) 교육-노동 시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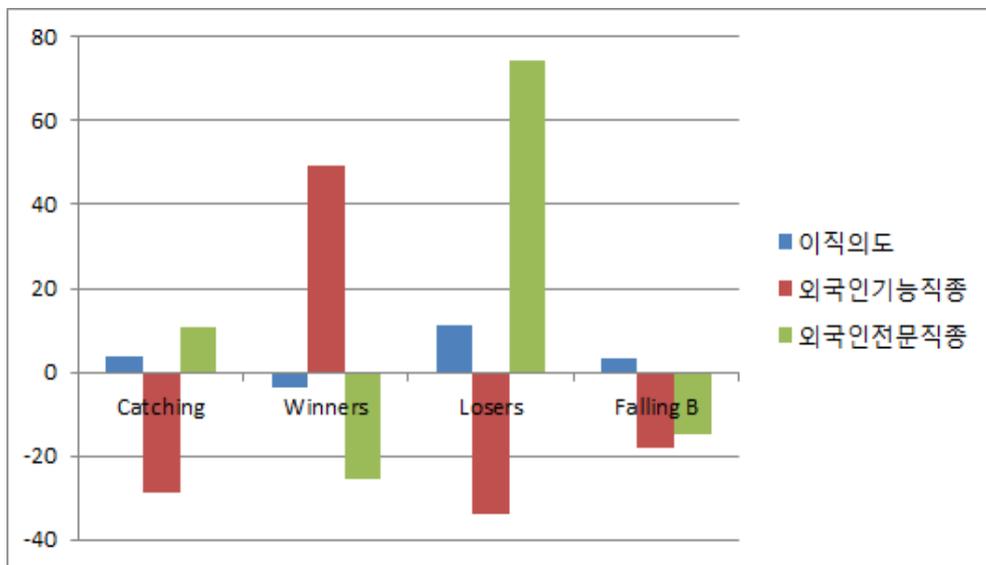
선도 및 추격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현장적용성이 높은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했으며,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특히, 선도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회사 내 공식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5] 시군구 지역의 교육-노동 시장 연계정도

### 5) 노동 이동

선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 내 근로자의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선도 지역은 기능 직종 관련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의 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 지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높고 지역의 생산액이 높아 경제적 기회가 많아 기능 직종 관련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 직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낙후 지역과 추격 지역에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시군구 지역의 노동이동 현황

#### 나. 회귀분석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의 요약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군구 단위에서 인적자본 스톡을 확보할수록 지역경제가 성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통적 인적자본 스톡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HCtert)은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역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성과 기술숙련의 지속적 축적 등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 인적자본인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보는 시군구 단위에서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회사 지원이 없는 경우, 즉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자이자 주민인 행위자 스스로 자기개발을 한 경우,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6)에서 근로자 스스로의 자기개발 투자(Training\_Self)는 지역성장과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여타 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셋째, 회사 내 집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모형(7)에서는 회사 내 집체교육을 실시한 경우(Training\_Inhouse),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역시 여타 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회사 내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Satisfy)는 Rodriguez-Pose, A & Vilalta-Bufi. M, (2004)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도로 주관적인 변인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일부 연계되어 해석될 경우 지역성장과의 연관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모형(8)에서 지역성장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인 모형(10)에 포함되어서도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Constant	-0.1506 (0.3671)	0.2133 (1.095)	-0.608 (0.4206)	-0.1446 (0.3726)	-0.1493 (0.3714)	-0.3372 (0.3737)	-0.3512 (0.37223)	-0.7854** (0.381)	-0.1917 (0.3721)	-0.232 (1.127)
GRDP2005	1.102*** (0.1187)	1.1104*** (0.1219)	1.084*** (0.1165)	1.097*** (0.1247)	1.101*** (0.1226)	1.059*** (0.1187)	1.06*** (0.118)	1.004*** (0.1135)	1.010*** (0.1190)	1.046*** (0.1205)
HCSecon		-0.4131 (1.1704)								-1.260 (1.238)
HCtert			1.009** (0.4824)							1.016* (0.7202)
Curr_Insti				0.0554 (0.456)						-1.606 (0.9640)
Curr_tert					0.005 (0.1660)					0.5267 (0.3563)
Training_Self						1.029* (0.5342)				0.0553 (0.6916)
Training_Inhouse							0.5505** (0.2651)			0.3.68 (0.2950)
Satisf								1.76*** (0.4831)		1.386** (0.5971)
Migra									0.3760 (0.4981)	0.5217 (0.4730)
R-sq.	52.5%	52.6%	55.1%	52.5%	52.5%	54.7%	55.0%	59.5%	52.8%	62.6%
Adj. R-sa.	51.9%	51.3%	53.9%	51.3%	51.3%	53.5%	53.8%	58.4%	51.6%	57.8%

주 1) 종속변인은 2011년 시군구 1인당 GRDP에 로그를 취한 값임.

2) 유의수준은 0.01 미만인 경우 \*\*\*, 0.05 미만인 경우 \*\*, 0.1미만인 경우 \*로 표기함.

##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인적자본의 측정변수인 교육 변수 이외에 인적자본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 변인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성장과의 긍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중등단계 보다는 고등 단계에서 인적자본화가 잘된 지역일수록 지역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관성은 앞선 회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계수 및 유의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 변인 외에도 지역의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회사 지원이 없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자기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일부 모형에서 지역성장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학구열 또는 해당 지역 내 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혹은 지자체장)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기주도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해당 지역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인적자본 축적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선도 지역과 달리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낙후 지역과 *falling behind* 지역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인적자본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회사가 지원하는 여러 교육훈련 및 교육-노동시장 연계 인적자원 지표가 취약하다는 점은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는 인적자본 이론에 기반을 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간 격차 발생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격 지역의 경우, Rodriguez-Pose, A & Vilalta-Bufi, M, (2004) 연구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인적자본 지표가 선도 지역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각 시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지역간 편차가 크며, 이는 해당지역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에 상당히 불리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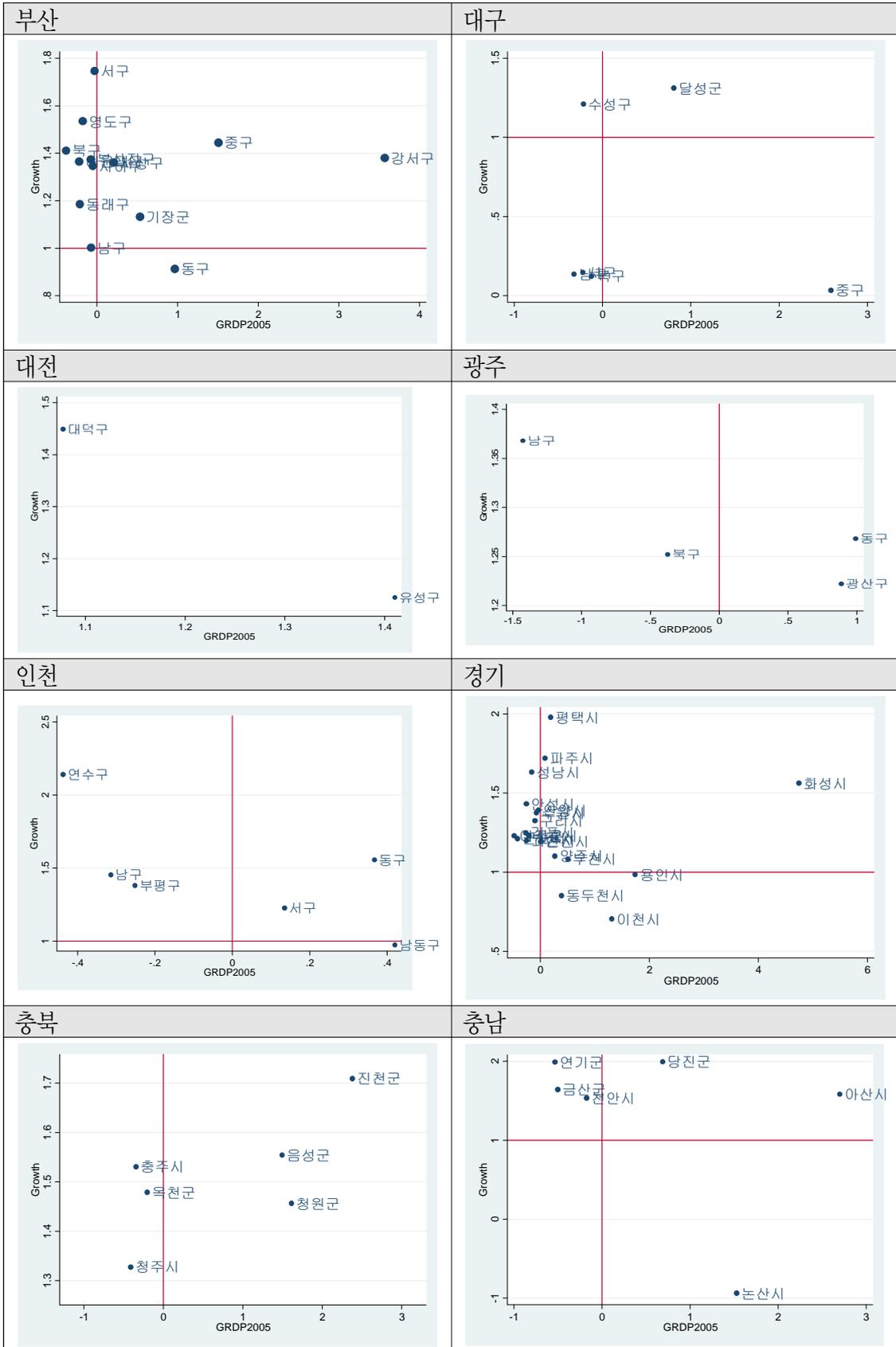
넷째, 국가 단위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정책이 국내산업의 보호와 발전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능직종에 유입되는 외국인 상당수가 이미 높은 경제성장율과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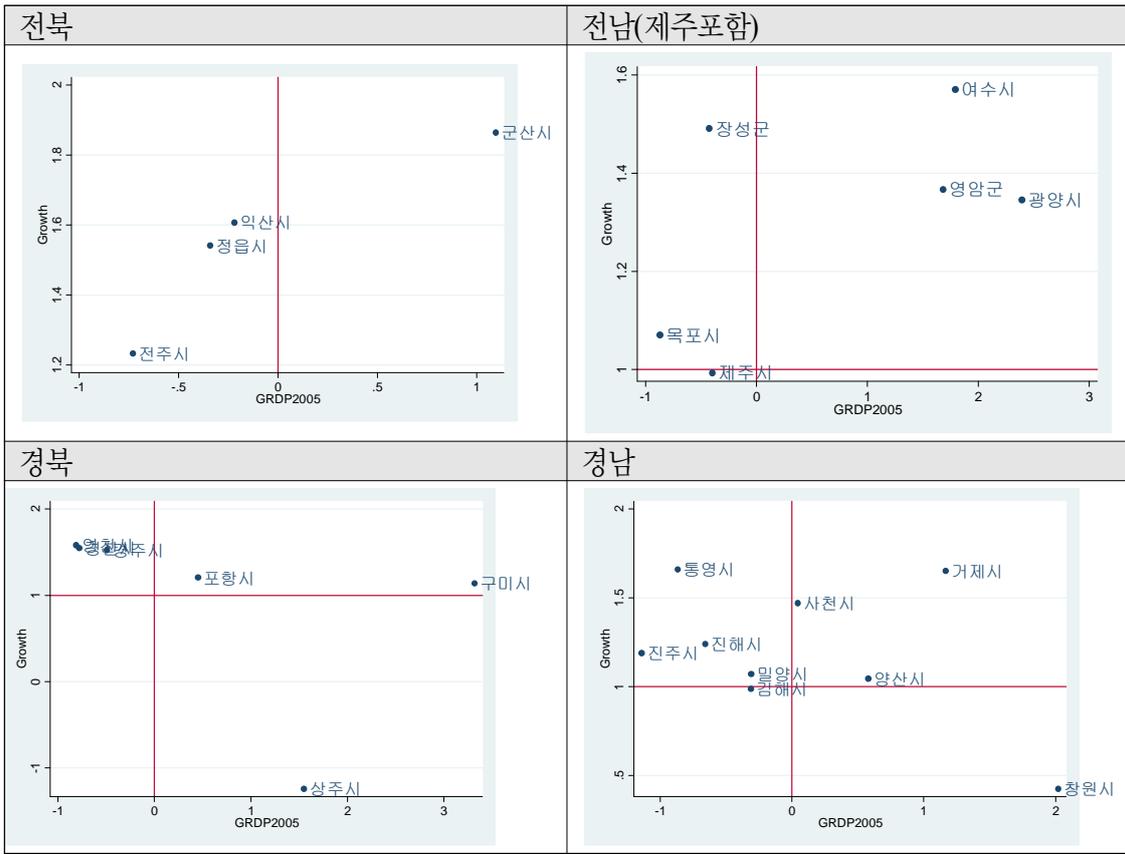
시도 내 경제적 자원이 집중된 선도 지역에 집중 분포해있다. 국내 일부 산업의 고용난을 단기에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고려한다면 기능직종의 외국인 인력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내 지역의 수요를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종구(2007).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본 추정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경제연구* 25(4), 1~29.
- 김종희(2010).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207~235.
- 심재희(200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국토계획* 38(7). 201~209.
- Caselli, Francesco. 2005. "Accounting for cross-country income differences."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dited by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Amsterdam: North Holland: 679-741.
- Druaton, G & Monastiriotis, V. 2000 Mind the Gaps: The Evolution of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UK 1982~1997.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2:219-256.
- Hanushek, Eric A., and Ludger Woessmann. 2012. "Schooling,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he Latin American growth puzz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9, no. 2: 497-512.
- Hanushek, Schwerdt, Wiederhold, and Woessmann. 2013. Returns to skill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PIAAC. Working Paper 19762. NBER.
- Rodriguez Pose, A. & Vilalta-Bufi, M 2004 Education, migr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regional returns of human capital in the EU. BEER paper, 1~28.
- Shultz, T. W. 1961.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1~17.

Appendix 1 : 시도별 GRDP 분포도





Appendix 2 : 인적자본기업패널 시군구별 표본수(2011)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표본수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표본수
부산	중구	26110	54	경기	파주시	41480	58
	동구	26170	53		이천시	41500	150
	영도구	26200	46		안성시	41550	120
	부산진구	26230	35		화성시	41590	232
	남구	26290	10		양주시	41630	30
	해운대구	26350	22		여주군	41730	36
	사하구	26380	110	강원	원주시	42130	49
	강서구	26440	114	충북	청주시	43110	24
	사상구	26530	149		충주시	43130	43
대구	중구	27110	17		청원군	43710	13
	서구	27170	53		옥천군	43730	47
	남구	27200	13		진천군	43750	33
	북구	27230	11	음성군	43770	47	
	수성구	27290	124	충남	천안시	44130	261
	달성군	27710	78		아산시	44200	34
인천	동구	28140	10		당진군	44830	34
	남구	28170	63	전북	군산시	45130	178
	연수구	28185	87		익산시	45140	268
	남동구	28200	268		정읍시	45180	32
	부평구	28237	172		목포시	46110	81
서구	28260	78	전남		여수시	46130	54
광주	동구	29110		86	광양시	46230	90
	남구	29155		20	영암군	46830	15
	북구	29170		48	장성군	46880	32
	광산구	29200	60	포항시	47110	103	
대전	유성구	30200	35	경북	경주시	47130	39
	대덕구	30230	90		구미시	47190	50
울산	남구	31140	260		영천시	47230	14
	동구	31170	21		경산시	47290	79
	북구	31200	55		경남	창원시	48120
	울주군	31710	83	진해시		48129	14
경기	수원시	41110	60	통영시		48220	39
	성남시	41130	246	사천시		48240	84
	안양시	41170	118	김해시		48250	83
	부천시	41190	116	밀양시		48270	39
	평택시	41220	212	거제시		48310	89
	동두천시	41250	24	양산시		48330	290
	안산시	41270	556				
	과천시	41290	63				
	구리시	41310	41				
	시흥시	41390	107				
군포시	41410	45					
용인시	41460	57					
<b>Total</b>							<b>13,275</b>